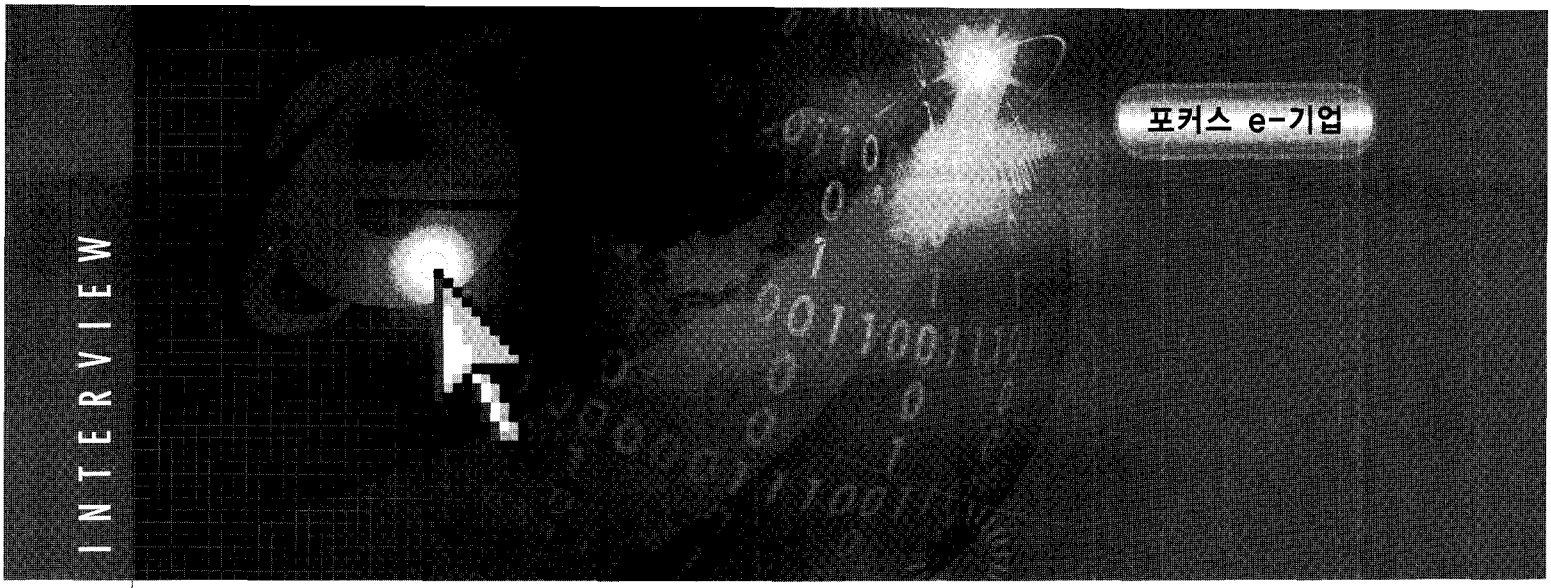


3D 광학계 및 초정밀 비구면광학계 등의 생산기반 구축

(주)프로옵틱스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신사옥 준공식 가져

(주)프로옵틱스(대표 · 정진호, www.prooptics.co.kr)가 지난 11월 19일 산학연 인사들을 초청하여 신사옥 준공식 행사를 가졌다. 2005년 12월 지금의 이천시 부발읍에 사옥 준공식을 가진 후 5년 만에 사세 확장과 함께 신사옥을 완공한 이 회사는 오는 3월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10주년 기념식도 겸하여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280여 평 규모로 지어진 신사옥에서는 3D광학계를 비롯하여 초정밀 대구경 비구면 렌즈 가공을 통해 초고미세 노광광학계, 천체 망원경 및 인공위성 광학계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취재 | 박지연 기자

프로옵틱스가 지난 11월 19일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신사옥 준공식을 갖고 더 큰 도약을 향한 힘찬 의지를 다졌다.

오는 3월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신사옥 준공일에 맞춰 앞서 치러진 이 행사는 서울광학산업 이지웅 사장을 비롯한 산업계 인사 및 임직원들과, 홍경희 전 한국광학회 회장, 김상렬 한국광학회 회장, 우태주 한국광학기기협회 회장, 박의협 이천장학회 이사장 등 초청인사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프로옵틱스의 10년사를 소개하는 동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3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부가가치 있는 광학계의 생산 및 국내 타 업체가 생산하지 않고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의 개발을 사업취지로 지난 2000년 설립된 프로옵틱스는 산업용 광학계, 노광용 광학계, 인공위성 광학계 등 초정밀 산업용 광학계 개발에 박차를 다해왔다.

그 결과 LED패턴검사용 Line CCD렌즈 생산을 시작으로 세계 최초로 검사용 줌렌즈를 개발해 큰 호평을 받으며 NEP인증을 획득했다. 5년 전부터는 미세선폭용 LCD노광용 광학계를 생산하기에 이르렀고, 습기가 있어도 손바닥 전체 지문인식이 가능한 인식광학계와 원자로 감시용 내방사선 광학계, 의료용 DR렌즈도 개발 생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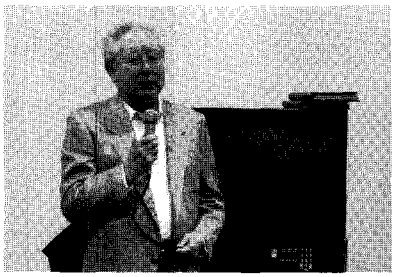
(주)프로옵틱스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신사옥 준공식 가져

프로옵틱스는 3D, 의료, 항공, 천문, 위성, 방위산업 분야를 회사가 나아가야 할 목표로 삼고, 이중 의료분야와 3D분야는 5년 전부터 꾸준히 개발을 진행해 왔다. 올해에는 3D 분야의 개발 및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할 목적으로 일찍이 신사옥 증축을 계획해 왔다. 지난 2005년 지금의 이천시 부발읍에 사옥(150여평) 준공과 함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며 고부가가치 산업용 광학계 개발에 전념해온 프로옵틱스는 2010년 신규사옥(280여평) 준공을 계기로 3D산업을 비롯하여 초정밀 대구경 비구면 렌즈 가공을 통해 초고미세 노광광학계, 천체 망원경 및 인공위성 광학계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아울러 2010년을 신규사업진출 원년의 해로 선포한 가운데 5년 후 1인당 5억 매출 달성, 10년 후 셋트당 100억 원짜리 광학계를 개발, 판매한다는 목표를 향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정진호 사장은 "올해는 프로옵틱스가 주인이 되는 새로운 법인이 탄생하게 될 것"이라며 "창립 10주년을 기점으로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새로운 10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인사말을 하고 있는 정진호 프로옵틱스 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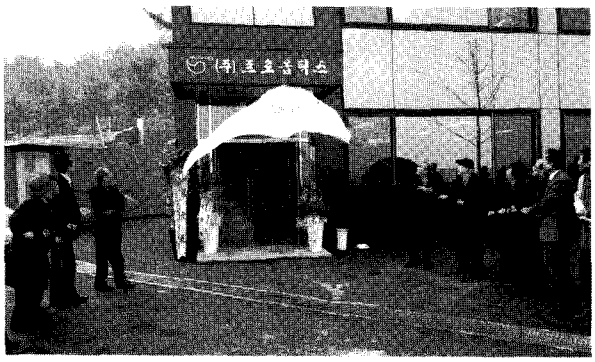


▶ 산업계 대표로 축사를 하는 이지웅 서울광학산업 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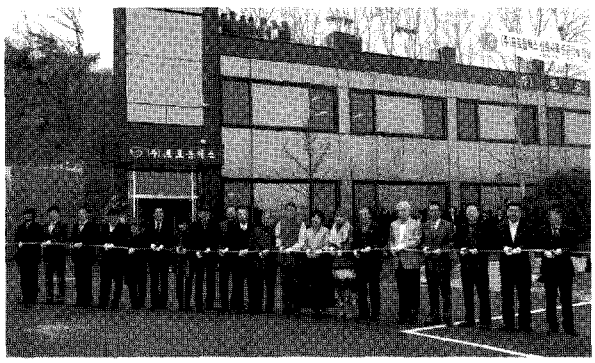
▶ 기념식수 행사 광경

▶ 참석자들이 프로옵틱스의 10년사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관람하고 있다.

▶ 김상렬 한국광학회 회장의 건배 제의로 참석자들이 프로옵틱스의 발전을 기원하는 축배를 들었다.



▶ 신사옥 현판식 광경



▶ 테이프 커팅 광경